

## 기노모토주쿠 역참 마을과 훗코쿠 가도

도쿠가와 막부 시대(1603~1867)의 다이묘라 불리는 영주들은 정기적으로 수도인 에도(오늘날의 도쿄)를 방문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도 방문은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다이묘들은 호위무사, 시종, 하인들로 구성된 큰 규모의 수행단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수행단은 에도와 일본의 다른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인 '가도'를 이용해야 했으며 여정 중에는 역참 마을에 자주 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코쿠 가도는 기노모토주쿠 역참 마을을 지나 에치젠과 에도를 잇는 도로입니다. 이 마을은 대부분 여관, 도매상, 역참, 일본술 양조장 등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부에는 기노모토 지조인 절이 있었으며, 근처 도로에는 작은 수로와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절과 기노모토 역 주변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과 명소는 옛 역참 마을의 유산 보호를 위해 보호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치리즈카

에도 시대(1603~1867)의 거리 단위는 리(里, 약 4km)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리마다 나무를 심어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이 표시를 이치리즈카(1리 둔덕)라고 하며, 수도로 오는 길에도 같은 표시를 했습니다. 기노모토주쿠가 역참 마을이었던 시대에는 여기에도 이치리즈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 역사적 옛 게시판

옛날에는 이곳에 지방 기관이 법을 공표하기 위해 만든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시판은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역참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